



서울시
폭염 전면전
쉼터 4000곳 운영
L2

metro®

Life

백화점 3사
K-브랜드
해외진출 지원
L4



재난현장 달리고, 도심숲 가꾸고... 내일 위한 '희망 드라이브'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쏟는다. 지원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공헌 활동은 단기적인 지원보다 지역사회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는 동시에 시민과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와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사회 변화 이끄는 맞춤형 사회공헌
소방·복지기관에 지원차량 79대 기증
복지 편의성 높이고, 재난대응 현장 지원
12년간 국내 누적 기부금 515억 달성

기부 달리기 행사 '기브앤 레이스' 열어
기부금으로 아동·청소년 보호공간 마련

◆복지기관 이동 지원 넘어 지역 재난 대응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자동차 기업의 특성을 살린 차량 기증을 통해 복지기관 이용자의 이동을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차량 지원 대상을 소방기관으로 확대하며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1일 경기도소방재난 본부와 충북소방본부, 용인·울산·광주 지역 소방 기관에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QB 300 4MATIC' 5대를 기증했다. 지원 기관은 재



제12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Mercedes-Benz GIVE 'N RACE)'가 지난 6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난 발생 빈도와 지역 특성, 담당 임무, 긴급 투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기증 차량에는 기관 식별 표시와 무전기, 경광 등 등 재난 대응 장비가 설치된다. 현장 인력과 장비 운송 등에 투입돼 각 지역의 화재·재난 대응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공헌위원회가 2016년부터 사회복지기관과 소방기관 등에 기증한 차량은 이번 지원을 포함해 총 79대다. 복지기관에 전달된 차량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병원 방문과 문화활동,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활용돼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와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왔다.

차량 지원을 비롯한 사회공헌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14년 출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국내에 누적 약 515억원을 기부했다.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투입됐다.

지난해에는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인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를 통해 전국 34개 아동·청소년 사회복지기관에 교육지원금 2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 모아 아동·청소년 보호 기반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시민이 사회공헌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기부 달리기 행사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은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확충과 성장 지원 등에 활용된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제13회 행사에는 시민 2만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인 10억2000여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명의로 기부되며 2017년 첫 행사 이후 누적 참가자는 약 16만5000명, 누적 기부금은 약 86억원에 달한다.

올해 조성된 기부금 가운데 5억원만은 동두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투입된다. 해당 기관은 동두천과 연천 지역을 관할하며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 보호, 상담과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동두천과 연천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어 피해아동과 가족은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새 기관이 문을 열면 경기 북부 지역의 아동 보호 공백을 줄이고 상담과 치료, 회복 지원을 지역 내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억원은 부산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전용 활동공간 조성에 활용된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머물며 문화·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행사가 열린 지역에도 기부 성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도심숲 조성하고 미래 자동차 인재 키운다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도심 녹지 조성과 산불 피해지역 복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 나무를 심는 한편 산불로 훼손된 산림에는 방화림을 조성해 피해 재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22년 서울시와 '그린플러스 도시숲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 도심 곳곳에 녹색 쉼터와 도시숲을 조성해왔다. 올해 5월 서울숲에 새롭게 마련한 도시숲까지 포함하면 조성 지역은 총 8곳이다. 서울숲에 새롭게 조성한 도시숲은 689㎡ 규모로 사철나무와 조팝나무, 둥근참죽 등 814그루를 심었다. 기존 수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산책로 주변에 휴식공간과 야간 조명을 설치해 이용 편의도 높였다.

도심 녹지 활성화... 도시숲 8곳 조성
산불 피해지역 산림복원·방화림 구축

자동차 전문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기술교육, 글로벌 현장 경험 기회 제공

산불 피해지역에는 산림 복원과 방화림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에 10억원, 지난해 경상도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5억원을 지원했다. 울진 도화공원의 방화림 복원은 마쳤으며 영덕 별파랑공원에는 '희망숲'을 조성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에는 자동차 산업의 전문성을 접목했다.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를 통해 자동차 전공 학생에게 기술교육과 글로벌 산업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제19기 프로그램에는 전국 10개 자동차 전문학과 학생 200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우수 수료생 9명은 독일 본사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관계자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업 시민의 역할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전국 소방기관에 기증한 'EQB 300 4MATIC' 차량.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도심 환경 개선과 기후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서울숲에 689㎡ 규모의 '그린플러스(GREEN+) 도시숲'을 조성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트로  한줄뉴스



▲'韓 첫 MLB 투자자' 박찬호 "애슬레틱스서 뛰는 한국 선수 기대"
▲10년만에 우승 한 폰 신지은, LPGA 투어 30년만의 진기록
/사진 뉴시스

▲'후반기 고전' LG, 코치진 보직 변경 단행... "분위기 변화 위해"
▲박지성 "축구협회장 선거인단 1만명 확대...프로·실업·대학 등 추가"

▲김구가 광복의 감격 적은 병풍...국중박 기증유물전
▲상반기 미술시장 1108억...초고가만 웃고 양극화 심화